# 마지막 전시실은 비어 있습니다

시간을 잇는,
사람을 잇는
한반도의 이야기

모든 전시실은 열려 있었습니다.
단 하나를 빼고.

한반도
역사문화박물관
Korean Peninsula History
and Culture Museum

안내

어서 오세요.
한반도 역사문화박물관
특별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슨트
지 안
Ji-an

마지막 전시실
전시 준비 중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내일을 이어갑니다.






# 익숙한 역사

##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들













이상한 빈칸
이름표는 있는데, 유물이 없다
북녘의
문화유산,
지금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라진 것이
잊힌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지안
Ji-an
이어지는
한반도의 문화유산
사람과 땅,
그리고 오늘도
함께 기억할
모든 곳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Korean Peninsula
Shared Heritage, Our History
개성 만월대
(고려 후기)
고려성균관
(고려 시대)
개성 남대문
(조선 시대)
왜 비어 있지?
기억하고
이어가는
한반도
사라진 유산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전시실
전시 준비 중
관람 불가
선생님,
이 문화재들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직
만나지 못한 거야.

# 역사가 둘로 나뉜 적은 없었어

하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빈 진열장은, 아직 만나지 못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역사문화박물관
Korean Peninsula History
and Culture Museum

역사가 둘로 나뉜 적은
없었어.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있었을 뿐이지.

역사는
사람을 통해
다시 이어집니다.

역사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한반도 역사문화[illegible]관 (확장 계획안)

남측 문화유산관
(과거 · 현재 · 사람)

북측 문화유산관
(기다리는 시간)

사람이 있는 역사
한반도의 문화유산
함께 만드는 내일

한반도 역사문화박물관
관장

역사는 이어집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시간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중입니다.

만날 준비 중인
시간

하나의 땅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할 내일


개성 만월대의
시간이 돌아오다
고려,
세계를 품은
왕도 개성
사람과 품화가
만난 곳
비어 있던
자리에…
시간이
돌아왔어.
개성 만월대
고려의 왕궁, 이어지는 시간
개성 만월대는
고려의 정치·문화의 중심이었던
왕궁터로, 오늘도 그 흔적은
우리를 과거와 이어줍니다.
개성 만월대
고려의 왕궁터
사람과 세상을 잇던 곳
첫 번째 빈칸이 채워졌습니다.

# 박물관이 살아난다

## 유산들이 서로 이어지다

서로 다른 전시가 아니라,
하나의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채워졌어요!

개성 만월대
고려의 왕궁터

백제금동대향로
백제의 예술과
기원을 담은 향로

응.
하나씩,
다시 이어지고
있어.

개성 남대문
고려시대의 문루

사람을 잇는
교류의 관문

고려성균관
인재를 기르던 배움의 터

배움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팔만대장경
지혜를 새기고 지켜낸 기록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사람들의 마음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 남측과 북측 안내판을 내리다

서로 달랐던 이름이 내려가고,
이제 하나의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 완성되는 한반도, 함께 걸린 기록들

비로소 박물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이 채워진 순간, 흘어져 보이던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통일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어온 역사를 다시 한자리에서 읽는 일입니다."